

## 소 식

### 광주지역 시립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있을 수 없는 일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 도서관(무등·사직도서관)과 새로 개관할 예정인 1개 도서관의 운영을 모두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신문지상(광주일보 '97년 8월 5일字)에 신청자 모집공고를 냄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문제가 우리 도서관계의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공립공공도서관의 관리 운영이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협회의 입장을 밝힌 공한과 **반대의견서**를 광주시청에 보내는 한 편, 도서관 관련 9개 단체 대표들(서지학회, 전국사서협회, 전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전문대학문헌정보교육협의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한국도서관협회)로 구성된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립 공공도서관의 민영화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광주일보 지면('97년 9월 1일字)에 발표하고, 전국사서협회에서도 질의서 및 성명서를 전달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움직임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하였다. 공한 및 반대의견서, 광주일보에 게재한 성명, 사서협회의 질의 및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계획 철회 요청 공한

수신 광주광역시장

제목 시립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일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시에서는 귀 시가 운영하고 있는 2개 도서관과 새로 개관할 예정인 1개 도서관의 운영을 모두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신문지상 등에 신청자 모집공고를 한 것을 보고 우리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이에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우리 협회의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3. 우선 우리 협회는 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민간위탁이 시민들과 도서관에 관련한 전문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의 조직관리 차원에서 인원 및 예산감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은 구체적인 목적과 추진방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등 그 추진배경과 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과 의문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공공도서관은 민주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공공의 장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知的自由權, 文化享受權) 보장을 위한 헌법적 『責任』

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세계 각국 도서관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있으며, 국제연합(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의 일관된 원칙이기도 합니다.

- 5. 소위 행정개혁이라는 물결을 타고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을 기도했던 세계 유일의 나라 일본의 경우, 실제로 위탁이 실시되었던 몇몇 도서관들은 결국 “실패”의 평가를 받았고, 마침내 위탁논의 자체가 숨어들게 된 사례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 6. 요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있고 전문적인 양질의 도서관봉사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납세자의 기본적으로도 정당한 권리이고,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의 이른바 민간위탁이란 권한의 위양이 아니고 책임의 유기를 의미합니다.
- 7. 존경하는 시장님

그 동안 광주광역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기울여 오신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있는 우리 협회로서는 시장님의 이번 조치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문제는,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이념에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력이나 예산 등의 이유로 행정적 편법을 찾아 접근할 성질의 사안이 못되는 것입니다. 공립공공도서관의 관리 운영이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힌 우리협회의 의견서를 첨부 하오니,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부디 이번 조치를 바로 중단하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바랍니다.

- 8.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하며, 위 문제에 대한 귀 시의 향후 입장과 계획을 되도록 소상히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997. 8. 22

한국도서관협회장

▶ 의견서

공립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의견서

1. 과연 도서관 민간위탁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최근 극소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계획하고, 실제로 민간의 희망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지역도 있다. 왜 갑작스럽게 공립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민간위탁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는가?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고자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단계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의 민간위탁 밖에는 없는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민간에게 의지해서라도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자 하는 진심어린 마음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동안 정말 열심히 제대로된 도서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하는가? 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의 전문가에게 맡겨서라도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왜 현행 법령에 따라 공립공공도서관 관장에 사서직을 보임하는 일에는 이처럼 소극적인가? (1997.7.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중 사서직으로 관장을 보임한 경우는 전체 114개 도서관 중 겨우 13개 도서관에 그치고 있다). 의문은 너무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성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기

왕의 부실한 도서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현 단계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슬쩍 민간에게 떠 넘김으로써 행정책임을 피해보겠다는 알팍한 술수일 뿐이다. 과연 도서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결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공립공공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도서관 서비스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책임의 유기』이다. 이것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민간위탁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과연 도서관 서비스가 민간위탁이 가능한 영역인가 하는 점과 민간위탁이 도서관 활성화에 어떻게 합당한 방안인가 하는 점, 국내외 유사한 경험은 어떠했는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점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공립공공도서관은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知的自由權, 文化享受權)에 속하는 영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구에게나 고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운영은 단순히 행정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21세기 문화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를 유기한 채 단순히 행정적 편의만을 고려한 파행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일 뿐이다.

## 2. 구체적인 문제점

최근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처음부터 고려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은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가.

전문적인 양질의 도서관봉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여야 하는 공공의 서비스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운영을 담당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정해진 시설 및 자료기준에 적합한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육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1항, 시행령 제24조). 특히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의 충실한 육성이야말로 시민 모두가 적절하게 정보를 소유하고 활용하여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절실한 사회기반시설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의 자각이,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유네스코)가 천명한 바 있는 ‘공공도서관선언’에 의하면 모든 국가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그 나라 공공도서관의 체제와 수준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국민의 기본보장을 위한 민주국가의 기본사업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올바른 육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뒤로 제쳐둘 성질의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계는 일찌부터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해 왔으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도 1997년부터는 공공도서관 관장에 사서직을 보하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전문가인 사서직 공무원에 의한 도서관 운영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이는 비전문가들에게 맡겨두었던 지난 시절, 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단순히 학생들의 공부방 역할에 그쳤다는 사실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뼈저린 반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제 도서관 발전을 위해 전문가로서 그 역

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이용자인 시민들과 관련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듯 전문가에 의한 공공도서관 운영이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대부분의 공립공공도서관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는커녕 느닷없이 공립공공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책임회피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할 중요한 문화행정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과연 민간위탁에 적합한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도서관운영은 민간위탁에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공공도서관은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그들에게 부여된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사상,문화와 생활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의 정보센터이다.

도서관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깊이있는 정보와 자료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도서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도 규정한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열려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료나 정보를 구할 기회가 주어지고, 원하면 언제라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의 이익 (즉, 국가와 지역공동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한 도서관은 전적으로 '공적 책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예산절감 따위의 목적에서 대부분의 운영경비를 민간에게 부담시키려는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은 절대로 공공도서관과 같이 그 목적자체가 순수한 비영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공공성이 강한 도서관 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그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도서관 설립과 육성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유기하는 것일 뿐이다.

- ② 도서관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도서관봉사이념에 충실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배경에는 그간 공부방에 머물러 있던 공공도서관을 제대로 된 도서관으로 만들어보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공공도서관은 공부방이 아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언뜻 그 주장에 동조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진정 도서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 공공도서관이 공부방을 탈피하여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 협회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물론 유네스코도 천명한 것처럼, 공공도서관은 연령,인종,성별,종교,국적,언어 또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나 시민생활, 의식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봉사가 가능하려면, 결국 도서관은 시민들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하며, 전문가에 의한 운영을 필요로 한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공공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절대로 도서관봉사이념을 지켜낼 수 없다고 확신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공공도서관은 “공공비용의 원칙”, 즉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공공도서관의 기본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경제적 입장이나 편견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도서관의 봉사원칙을 지키기 위해 직접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진대 예산절감이나 운영의 편리함을 내세워 공공도서관을 민간에게 넘겨버리려는 것은

대책도 없이 도서관운영의 기본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스스로 내세운 이유와도 배치된다. 이렇듯 도서관봉사이념을 지지할 만한 재정투자를 보장할 수 없는 민간위탁은 결국 시민들에 대한 공공의 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 ③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은 크지만 수익성이 없으며, 시민의 사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적합하지 않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순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직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단체나 민간에 운영을 맡기게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운영비 조달은 가능한 정도의 경제성이 있는 분야의 사무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은 과연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로서 공공성은 강한 대신 수익성은 거의 없는 공공서비스이다. 더 나아가 보건소 등과 같이 이용자인 시민들의 사생활에 깊숙히 관련되어 있어, 이용자의 사생활보호가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재정적으로 운영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의 사생활 보호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실시했던 일본의 경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 실제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던 도서관들에 대해 결국은 민간위탁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내려졌고, 현재는 민간위탁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공공도서관 업무의 성격상, 그리고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도서관은 결코 민간위탁에 적합한 부분이 아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무시하고 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도서관운영의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경우 도서관운영 부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운영비를 부담하는 납세자이자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납세자인 시민들은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향유하기는커녕, 더 많은 경제적 부담과 사생활 노출위험을 감수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공공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3.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충실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이는 운영의 민간위탁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관심과 지원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공공의 서비스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한다. 즉, 민간위탁 논하기 전에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서 감당해야 할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과제 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주장한다.

- ① 현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규정된 시설 및 자료, 전문직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을 적극 지원하여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아직 국민들은 도서관 서비스가 자신들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수도 적고, 전문인력, 시설 및 자료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도서관 상황으로는 국민들에게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서비스 부재가 국민들의 관심부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진대 시민들의 무관심을 이유로 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의 합리화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현상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서관 지원을 꾸준히 해 왔다고 하더라도, 느닷없이 공공도서관 운영을 민간에게 넘기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과연 시민들이 지지하리라 생각했는가? 우리 협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도서관 발전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늘여가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도서관 서비스가 정상화하기도 전에 이를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명백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회피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민간위탁의 이유가 전문가에 의한 도서관운영 활성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사업자를 찾고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주장은 허구일 뿐이다. 현재 운영 중인 2개 도서관에 근무중인 직원은 총 56명으로 정원 63명의 89%에 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서관 전문가인 사서직의 경우는 겨우 79%(24명 정원에 19명 근무)에 머무르고 있다(표 1). 나아가 현 정원 24명조차도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기준에 비하면 그 수는 너무도 적다. 법에 의거, 시설규모와 장서에 따른 소요 전문직원의 정원을 산정해 본 결과 2개 도서관에 필요한 사서직원은 총 74명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원이 24명, 현원은 19명으로 <현인원 대비 기준>으로 볼 때 전문직원 확보율은 겨우 26%에 그치고 있다(표 2). 이렇듯 법령 준수여부가 강력하게 부과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조차 전문직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과연 도서관운영을 위탁받은 단체나 민간에서 이러한 기준을 지킬 수 있다고 할 것인가? 따라서 우리 협회는 무엇보다도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했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한 점을 호도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표 1> 1996년 공공도서관 직원 총원 현황(광주광역시 경우)

구분	행정직	사서직	기타	계
무등도서관	4/3	10/14	12/14	26/31
사직도서관	8/8	9/10	13/14	30/32
계	12/11	19/24	25/28	56/63
총원비율(%)	109	79	89	89

\* 문화체육부, '97년도 전국 공공도서관 및 문고현황

<표 2> 법에 규정된 배치기준에 따른 사서직원 배치현황 분석

구분	건물	장서	기준	현원	부족	배치비율
무등도서관	9,148	131,683	49	10	39	20%
사직도서관	5,265	75,350	25	9	16	36%
계	14,413	207,033	74	19	55	26%

\* 단위: 건물(시청각실 포함) m<sup>2</sup>, 장서(도서자료)는 권

\* 기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거하여 산출

\* 통계(건물, 장서, 현원)는 문화체육부, '97년도 전국 공공도서관 및 문고현황

- ② 전문가에 의한 도서관운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직원들에 대한 전문화를 위한 제도 준비를 강구해야 한다.

민간위탁의 목적이 전문가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의 전문인력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순서이다. 사서직의 인사이동을 탄력있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서직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제도 마련, 도서관 기간업무(수서, 정리, 서비스 등)에 사서직원을 배치 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인 사서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이에 부합되는 책임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이러한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스스로도 무관심했거나 무시했던 전문직원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어떻게 민간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 ③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의 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도서관 서비스의 성공여부는 합리적인 정책과 기본목적 이해하고 이를 충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도서관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에 있어 시민참가와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로써, 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이러한 참여와 협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부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이다.

#### 4. 참다운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의 직영은 필수적이다

모든 관계자들이 가슴아파 하는 것 처럼, 그동안 도서관은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 채 학생들의 공부방으로서 밖에는 기능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규명해 보고, 과연 민간위탁이라는 것만이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되물어야 한다. 최근에 와서는 전문가인 사서직을 관장으로 보임토록 하고, 전산화에 박차를 기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토록 하며, 충실한 자료구비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이제 막 도서관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시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일 뿐 아니라, 도서관 운영을 잘 해 보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민간사업자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서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한 계획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이나 직접적인 이용자인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나 의견청취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과연 표면적으로 내세운 바와 같은 충실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에 합당한 방안이 민간위탁일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믿음과 의지로 추진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듯 중요한 도서관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를 검토하고 관련되는 사람이나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가? 아무리 어렵고 귀찮더라도 관련자의 의견청취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속한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민간위탁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번 민간위탁 결정이 도서관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보다 많은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협회에서는 공공도서관 운영은 민간위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책임유기에 해당하는 이러한 정책을 더 이상 채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지금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낙후된 도서관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며,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민간위탁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도서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





## ▶ 사서협회 질의서

수신 광주광역시장

제목 시립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일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지난 8월 5일자 공고 [시립도서관 운영, 화훼류 계약 생산 희망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 광주시가 지금까지 도서관을 운영해왔고 앞으로 직접 운영해야 하는 것은 도서관은 민주 사회의 기반 시설로서 공공서비스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며 또한 공공도서관을 통해 정보 봉사를 받고 평생 교육의 장을 가지는 것은 세금을 내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이번 조치는 시의 기본적인 책임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시민의 헌법 상의 기본 권리인 지적 자유권과 문화향수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 제공 및 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공립공공도서관과 사립공공도서관을 개념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민간 위탁하는 것은 시의 이러한 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가 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 광주시는 시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이며 또 실행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도 시의 전체적인 발전과 어께를 나란히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송언종 광주광역시장은 지자체 단체장 선거 출마 당시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발전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언종시장의 공약, 이렇게 실천되고 있습니다’(97.1)라는 시정 홍보책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3-7-1 각급 사회교육시설 지원 보강

- 도서관을 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관내 공공도서관의 장서 확충과 자료 구입비 지원을 확대하고

### 3-7-2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 및 특성화

- 기존도서관에 대해서는
  - 부족한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 건립중인 산수도서관을 금년 8월에 완공토록하고

위의 내용과 도서관 민영화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으로 광주시의 ‘도서관 정책 부재’를 실감케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두가지 일의 연관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광주시의 장기적인 도서관 발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 도서관은 사회 발전에 맞추어 끊임 없이 변화 발전이 요구되는 기관입니다. 정보화의 요구가 높아져가고 있는 이때 공공도서관은 ‘공부방화’를 탈피하고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의 정보 문화 센터로 발돋움하기 위한 걸음을

힘겹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실행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위 다항과 관련하여 보건의대 위탁의 방식이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제3섹터방식이든지, 수탁이든지 지속적인 지도·관리가 가능할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민간 위탁 이후 지도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공공도서관 표류 및 부재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서관 민영화는 국내 최초의 경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사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외국의 선례를 조사한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서관의 민간 위탁에 성공하여 지자체가 운영한 것보다 훨씬 발전적인 경우가 있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바. 광주시는 도서관 민간 위탁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했어야 합니다. 도서관 전문가는 바로 사서입니다. 도서관 발전을 바라다면서 도서관 운영 주체인 전문가에게 견해를 묻지않는 것은 진정한 발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며, 도서관을 향토문화의 장으로 활용한다면서 문화 주체인 시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은 열린 행정을 표방하는 현 추세를 역행하는 처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등)에 따르면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으며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 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사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세계인권선언과 유네스코의 공공도서관 선언을 근거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무라고 판단하며 또한 능률성보다는 공익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시립도서관이 민간 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답변 해주십시오.

3. 전국사서협회는 광주시의 도서관 민간 위탁을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4. 다시 한 번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위 질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서협회 성명서

— 광주시의 시립도서관 민간 위탁에 대하여 광주시와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립도서관을 민간 위탁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낸바 있으며 전국사서협회는 이러한 광주시 행정에 대해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광주시는 이러한 조치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심사숙고한 흔적도 없이 다른 민간 위탁 대상 기관 속에 도서관을 슬그머니 끼워넣었다. 우리 협회는 광주시의 이러한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광주시는 광주시민 및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무시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공적 기관인 시립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을 회피하려는 직무유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적시하고자 한다.

1. “정보화 사회”라고 규정되는 현대에서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중요한 인권의 문제이다.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문화향수권(文化享受權), 지적자유권(知的自由權)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당연히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여야 하는 공적인

서비스이다. 국민의 기본권리를 수호하는 사회적 공기능을 민간에게 넘기겠다고 함은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모욕이다.

2.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공공도서관과 사립공공도서관을 개념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립도서관의 민간 위탁은 공공서비스의 증대한 책무를 손쉽게 넘겨버리려는 행정편의적 행위인 동시에 직무유기이다.
3. 우리는 묻고자 한다. 도서관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인가? 도서관에 대한 전문가는 사서 아닌가, 또 도서관을 연구하는 학자들 아닌가. 정부에서도 전문가가 도서관을 운영. 육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개정하여 공공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도서관도 이러한 법적 조치의 결과로 전문직관장이 취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업은 아이 삼년 찾는다”더니 광주광역시 당국은 있는 전문가 두고, 누구를 찾고 있는가? 굳이 길두고 뒤편 가는 숨은 뜻은 무엇인가?  
또한 묻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을 결정하면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한적이 있는지, 청문회라도 한번 개최해본 적이 있는지?
4.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공공도서관을 상업화 또는 공공도서관 봉사를 유료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그 수탁자가 도서관운영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우려는 광주시 당국이 민간위탁 공고를 내면서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공공도서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무료를 원칙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중요한 문화정책이다. 공립공공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서비스의 책임을 민간에게 슬그머니 전가하는 직무유기이다. 우리 전국사서협회는 광주광역시 당국에게 공공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증지를 간곡히 청원하여,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시립도서관 민간위탁 증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1997. 8. 27

전국사서협회

## 미국 동부지역 디지털도서관 연수

우리협회에서는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서관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미국문화의 본류를 형성하고 있는 동중부지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도서관 구축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서관들을 찾아, 디지털도서관의 개발 동향과 그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그들 도서관의 운영철학과 발전배경, 그리고 서비스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도서관문화의 올바른 진로를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미국 동부지역 디지털도서관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7월 27일(일) 부터 8월 4일(월) 까지 총 8박 9일의 일정동안 19명의 연수단원들은 'Library of Congress(LC)', 'National Science Foundation', 'Rutgers Univ., Alexander Library' 'East Brunswick Public Library' 'New York Public Library' 'Columbia University' 등을 방문하였는데, 특히 LC에서는 1994년도부터 추진중인 National Digital Library Program의 분야별로 담당장사들이 강의를 진행, 선진국가의 디지털도서관 현황 및 핵심기술, 관련문제점들을 심도있게 관찰할 수 있었다.(관련보고서: pp. 55-56). 우리협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내 도서관인들이 선진도서관 문화와 국제적 감각 등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 참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연수 참가자 명단

김성혁(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연수지도교수)	박계숙(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술정보실 사서)
강순애(한성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백선기(서울시립대학교도서관 계장)
강춘자(정읍시립도서관 사서)	손무환(대우재단자료실 사서)
곽승진(LG상남도서관 사서)	송대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자료정보실 사서)
구화자(이화여대도서관 정보자원개발실 과장)	유재복(한국원자력연구소기술정보실 사서)
권도영(경남고성도서관 사서)	이석원(서강대학교도서관전산실 사서)
권성하(창원대학교중앙도서관 관장)	전옥진(서울시립대학교도서관 계장)
김국희(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술정보실 사서)	박경아(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김명옥(숭의여전 문헌정보과 교수)	
김양미(한국자원연구소자료실 사서)	
김윤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자료정보실 실장)	

---

 제63차 IFLA총회에 33명의 한국대표단 파견
 

---

우리협회에서는 1997년 8월 31일(일) 부터 9월 5일(금) 까지 덴마크의 코펜하겐(Copenhagen)에서 개최되는 제63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and Institutions : IFLA*)총회에 총 33명의 한국대표단을 파견한다.

6일간의 일정동안 140여개 국가에서 모인 3,000여명의 각국 도서관인들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도서관과 정보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아래 새롭게 연구된 도서관·정보학에 관한 학문적인 이론과 실질적인 경영방안 등을 발표하며 또한 관종별로 토론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이번 해에는 신입회장 및 이사 선출도 있게 된다.

제63차 IFLA총회의 주제 및 부주제, 참가자 명단, 1998년 부터 2002년 까지의 IFLA총회 개최지는 다음과 같다.

▶ 주제 및 부주제

- 주 제 : Libraries and Informaion for Human Development
- 부주제 : -Libries and information for education
  - Libraries bridging the information gaps
  - Libraries and the ‘Right to know’/Democratic development
  - Libraries and cultural priorities
  - Libraries promoting access to the Arts and to artistic innovation
  - Libraries—the Memory of the World

▶ 참가자 명단

• A코스

(8. 29.~9. 6. 파리·코펜하겐·프랑크푸르트)

기민호(한국전자통신연구소기술정보센터 센터장)

김양순(한국개발연구원자료실 주임)

김하진(아주대학교도서관 관장)

박신석(한국표준과학연구원기술정보실 실장)

백명숙(전주대학교도서관 사서)

신황우(군산시청소년회관 관장)

유연숙(명지대학교중앙도서관 주임)

유흥근(명지대학교중앙도서관 주임)

윤찬영(전주대학교도서관 관장)  
이성렬(통신개발연구원정보자료실 연구위원)  
이성숙(한국노동연구원도서관 사서)  
이윤철(한국전자통신연구소기술정보센터 기술정보실장)  
장정남(한국과학기술연구원연구정보실 실장)  
전용기(단국대학교(천안)도서관 관장)  
한윤옥(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사공철(한국도서관협회 회장)

· B코스

(8. 27. ~ 9. 7. 파리·런던·코펜하겐·프랑크푸르트·하이델베르크)

강병열(산업기술정보원 정보자료실 실장)  
강형일(경기도립과천도서관 사서과장)  
고은자(현대해상화재보험자료실 사서)  
구분례(경찰대학교도서관 사서)  
김규숙(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서관 사서)  
김성기(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서관 관장)  
김영귀(부산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정란(국회도서관 법률정보담당)  
김효순(인천중앙도서관 관장)  
서운승(여천시립도서관 관장)  
오경자(김성기씨 동반자)  
윤영옥(서울마포도서관 사서과장)  
이완석(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과장)  
정현태(대우재단자료실 과장)  
한미덕(주한미8군교육지원단 영상정보도서관 사서)  
홍준식(국회도서관 전산운영과장)  
이현주(한국도서관협회 총무부장)

▶ 향후 총회 개최지(예정)

- 1998년/암스테르담(네델란드)
- 1999년/방콕(태국)
- 2000년/예루살렘(이스라엘)
- 2001년/보스턴(미국)
- 2002년/글래스고(영국)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술세미나 및 총회 개최

---

한도협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회장교 전북대학교중앙도서관)에서는 8월 22일과 23일 안동대학교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제28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월드와이드웹 검색엔진의 개관  
(윤대환/전북대도서관 정리과)
- 앱스코 연속간행물 자동화 시연회
- 21세기를 대비한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 디지털도서관과 관련하여  
(윤동원/전북대도서관)

또한 7월4일~5일 경상대학교 대학본부 대학의실에서 개최된 제49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총회에서 회장교가 전북대학교로 변경되었다(임기 2년).

---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여름세미나 개최 및 신입회장 선출

---

한도협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7월 9일 -11일 충주호 리조트에서 여름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세미나 기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에 박창욱 성결대학교 사서과장을 선출하였다. 세미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공동편목시스템(김영수/서울신학대학교 사서과장)
- 인터넷을 통한 학술정보 공동DB구축 및

- 상호 이용(정한영/경일시스템 대표)
- 대학종합평가를 대비한 도서관사례연구(최종명/가톨릭대학교 사서과장)
- 국가학술정보 유통체제의 확립 방안(4개학회 공동학술대회 참석결과 요약)
- 신학관계 학위논문DB CD-ROM 시연 및 교육(채종준/예주이미지 대표)
- 회원교간 상호대차 관련(박창욱/성결대학교 사서과장)

---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개최

---

한국정보관리학회(회장 이두영)에서는 8월 28일(목) - 29일(금) 양일간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정보검색, 인터넷, 색인' '분류, 목록, 이용자연구' '디지털도서관, 정보시스템, 도서관경영' 등의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총 3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정기총회 및 하계학술발표회 개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회장 박준식)에서는 8월 22일, 23일 양일간 충남대학교에서 1997/98년도 정기총회 및 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래도서관에 관한 고찰(권은경/대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여말 선초의 문서자료(남권희/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국가보유정보의 효율적인 서비스 구축 방안 (이용봉/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인터넷상의 메타검색엔진 검색효율성에 관한 비교연구(김성희/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 PC통신 기초 및 입문
- PC통신 중급 활용
- 사서교사를 위한 PC통신
- 인터넷 입문

서울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  
자율연수 강좌 개최

서울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회장 숙명여고 사서교사 박희)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 23일(수)에서 7월 25일까지 사서교사 및 도서실 담당 교사의 학교도서관 운영 및 정보봉사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97여름방학교원 자율연수를 개최하였다. 강좌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KORMARC(박양준/대진여고 사서교사)
- 성결대학교도서관 견학
- MAE4.0을 통한 도서관자동화(정한영/경일시스템 대표)
- 학교도서관의 능동적봉사-교수학습 협력 (한윤옥/경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학교도서관운영사례 발표 (진명여고/이정은 사서교사, 서초고/이경희 사서교사, 숙명여고/박희 사서교사)
- 학교도서관 발전방안 종합토의 (김현철/동아대학교 사서, 김선영/여의도 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김인곤/서울사대부고 교사, 이수호/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

작은도서관협의회, 임원 및 사무국 주소 변경

작은도서관협의회 연락처와 임원진이 7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주 소 : 우편번호 440-600, P.O.BOX 34-35
- 전화번호 : (0341)82-3344
- FAX번호 : (0331)252-5291
- 신임임원 : 회장(김진수), 부회장(홍양희, 정기원, 조성호, 김기원, 이균)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교육훈련 전담부서 설치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정기영)이 7월 18일 공무원교육훈련법(제7조)에 의한 특수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동안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도서관의 주요업무의 하나로서 전국 국·공립도서관 사서직공무원과 사립·전문·특수도서관 및 문고의 사서직원에 대한 연수업무를 수행해왔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도서관시설과 사서인력의 급증으로 인한 교육훈련수요의 증폭과 정보화시대 도래에 따른 도서관 관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서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97년 7월 7



일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서교육훈련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관련직제를 개편(대통령령 제15,421호)한 바 있다.

개편 내용을 보면 ‘지원협력부’를 ‘지원연수부’로 ‘문화연수과’를 ‘사서연수과’로 ‘지도협력과’를 ‘지원협력과’로 변경하고, 기존 문화연수과 업무중 전시회 등 문화행사업무는 열람봉사과로, 돛거진홍시책에 관한 업무는 지원협력과로 이관하여 사서연수과는 사서교육훈련업무만을 전담토록 함에 따라 총무처로 부터 사서전문교육을 위한 특수훈련기관으로 지정받게 된 것이다.

---

#### 국립중앙도서관에 UN자료 코너 문열어

---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가 OECD가입,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진출 등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UN자료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UN자료코너’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 자료실에 마련된 이 코너에는 유엔총회를 비롯한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마수국 등의 회의진행 자료, 각 위원회 자료 및 질의자료, 조사보고서, 통계자료, 조약집 등을 UN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02)532-2409>

---

#### 부산남구도서관 개관

---

부산광역시 남구도서관(관장 손병희)은 7월 1일 신축개관 행사를 가졌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5동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5,290㎡에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잠자도서실, 향토자료실 등을 갖추어 도서 약 45,000책 비도서 약 850여점과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용안내문의 : (051) 621-8160~2>

---

#### 부산맹인점자도서관, 남구도서관으로 이전개관

---

부산맹인점자도서관(관장 김인선)은 지난 7월 7일 남구도서관에서 이전 개관식을 가졌다.

남구도서관 내 점자도서실을 3년간 위탁 운영하는 조건으로 입주한 부산맹인점자도서관은 남구도서관 1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를 합쳐 6,740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용문의 : (051)626-9010-12>

---

#### 상록수독서회, 시화전 개최

---

상록수독서회에서는 9월 5일(금), 6일(토) 양일간 보라매공원 호수가 주변에서 시화전을 개최한다. 상록수독서회는 '88년 세명의 장애인 이 독서를 통해 간접경험의 폭을 넓히고 장애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고자 창립하였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란 구분없이 인격대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시화전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장애우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작업을 겸할 수 있는 공동체 마련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

서울 은평구민도서관 '98년 개관 예정

---

서울 은평구청은 은평구민도서관을 '98년 말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산59-32번지에 개관할 예정으로 작업을 추진중이다. 도서관은 연면적 1천816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도서관이 없어 불편하였던 은평구민들의 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다.

---

새로나온 문헌정보학 저서

---

「어린이정보자료와 활용 - 그림책에서 뉴미디어 까지」

- 한윤옥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著
- 아세아 문화사 / 9,000원

---

유경환 도협 이사, 서평위원에 위촉

---

우리협회 이사인 유경환(劉庚煥) 문화일보논설실장이 8월 25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權赫昇)의 서평위원에 위촉되었다.

---

회원소식

---

■ 하 음



육병일(陸炳一) 한국점자도서관 관장이 '97년 7월 10일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관장은 1929년 전북 전주에서 출생하여 1945년

조선총독부 재생원 맹아부를 졸업하신 후 맹인들의 교육복지의 저변확대와 효율적인 능력을 기하기 위하여 평소에 소망하던 맹인점자도서관 설치를 결심하고 물려받은 전 재산을 투자하여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한국점자도서관을 설립하였다. 30여년간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점자 도서, 녹음 도서 등을 제작, 대출하고 점자잡지 등을 제작, 무료대출 및 보급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건전한 사회 활동 및 교양생활을 도모하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현대적인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실명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무료교육을 통해 자립 자활에 기여하도록 애쓰셨다. 이러한 노고가 인정되어 '96년에는 제2회 독서문화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점자도서관을 신축하고 왕성한 활동을 계획하던 중이어서 더욱 도서관인들을 안타깝게 했다. 아울러 후임 한국점자도서관 관장에는 미망인 장순이 여사가 선임되었다.

---

인사소식

---

■ 공공도서관 사서직 관장 발령 ('97. 7.~8.)

- 부산남구도서관장 / 손병희
- 부산연산도서관장 / 강석수
- 경기성남도서관장 / 이상석
- 경기과천도서관장 / 인우길
- 경기수원도서관장 / 김달곤
- 경북청도도서관장 / 장경호
- 경북청송도서관장 / 장금주
- 경북영일도서관장 / 김낙중

경북외동도서관장 / 유동철  
경북울진도서관장 / 박영교  
경북영덕도서관장 / 정수자  
경북봉화도서관장 / 은희도  
경남창원도서관장 / 박애경

■ 인사이동

대진대학교도서관장 / 이만수  
동의대학교중앙도서관장 / 姜昌錫

■ 정년퇴임

김승현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장이 6월 30  
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주 소 :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2번지 현대  
Apt. 102-204호  
전화번호 : (02)822-7067

■ 도협사무국 인사



전국사서협회장 회장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자료정  
보실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하던 이용훈 사서가 7월14  
일자로 한국도서관협회 기

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겨와 일하게 되었다. 한편  
전국사서협회장은 조윤희(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  
관) 사서가 대행하게 되었다.

---

신입회원

---

❖ 환영합니다 ❖

〈단체회원〉

기독신학대학원대학교('97. 7. 25)

〈개인회원〉

• 보통회원

신상미(한국보훈병원도서관실, '97. 5. 15)

신동희(정부행정자료실, '97. 6. 26)

박재민(대우기전공업주식회사, '97. 6. 27)

조진숙(서울시새마을이동도서관, '97. 7. 3)

안미경(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97. 7. 9)

신창호(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97. 7. 23)

이해진(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97. 7. 23)

유형식(서강대학교로울라도서관, '97. 7. 23)

• 평생회원

조민정(서울시 송파구 잠실7동, '97. 7. 23)

---

사무국일지

---

- 7월 4일 제49차 국공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총회에 화환 전달
- 7월 22일 1997년도 제2차 분류위원회 회의
- 7월 24일 이용훈 기획부장, 서울중등학교도서  
관교육연구회 자율연수 강좌 참석
- 7월 27일 도협 주최 「미국 동부지역 디지털  
-8월 4일 도서관 연수」 활동

8월 6일	제63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총회 참가자 간담회	8월 22일	광주광역시장에게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공한 발송
8월 8일	이용훈 기획부장, 광주지역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관련 현황 파악차 광주시청 방문	8월 28일	도서관인윤리선언문안작성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기탁을 위하여 성금하신 분들  
(’97. 7.~8. 합계 20,000원, 누계 : 18,579,427)

❖ 고맙습니다 ❖

한영재 (포항제철기술연구소) 2만원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도서관인 여러분들의 성금 기탁을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圖書館文化 95년 9·10월호 35p-41p, 11·12월호 29p-32p, 96년 3·4월호 66p-70p 참조)

● 은행계좌번호 : 국민은행 / 088-25-0011-260 / 한국도서관협회

● 상 담 · 문 의 : • 전화 (02)535-4868

• FAX (02)535-5616